

2025 MARCH 3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CONTENTS

01 COVER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02 FOCUS

Aging in Place에서의 '임상병리사'의 역할

06 INTERVIEW

ODA사업참여 선구자 김동찬 회원

제506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We pioneer breakthroughs in healthcare. For everyone. Everywhere. **Siemens Healthineers Ltd.**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연구를 위한 모든 것 Total Lab Solution for you **Hyunil Lab Mate**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서경아
편집위원 이도왕, 이현희, 남기준
기자 황래환
디자인 서경아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가 2025년 2월 22일(토) 오후 2시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1부 개회식에서는 내빈소개와 개회선언, 국민의례, 임상병리사 윤리 강령 낭독, 홍창식 총회회장의 개회사, 이광우 협회회장의 인사말이 진행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위원인 서미화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재진 부의장 축사가 이어졌다.



홍창식 총회회장은 개회사에서 "정기대의원총회는 지난 한해 협회의 사업을 확인하고 올해에 대한 정책과 제도,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는 중요한 행사"라며 "대의원 여러분 한분 한분이 협회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기시고, 협회 발전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장은 "지난 2019년 총회부의장으로 선출된 이래 6년간 총회의 장단으로 활동하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전례 없는 상황에서도 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며 나름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광우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28대 집행부는 '협회를 회원에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회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1년간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후배들이 임상병리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2부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성원보고와 의안채택 및 의안심의로 시작해 △전 회의록 승인의 건 △2024년도 회무 및 경과 보고의 건 △202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관 개정의 건 △대의원 총회 부의장 선출의 건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이 진행됐다.

제5호 의안 대의원총회 부의장 선출의 건을 통해 박기범 후보가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총회부의장으로 추대됐고 홍창식 총회회장의 뒤를 이어 노경운 총회부의장이 의장직을 승계했다. 박기범 총회부의장의 임기는 3년이며 이후 대의원총회 의장직을 승계하게 된다. 노경운 총회회장은 "지난 3년간 탁월한 리더십으로 총회를 이끌어주신 홍창식 전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추대된 박기범 부의장님과 3년 동안 대의원총회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람중심 고령사회 패러다임 Aging in Place에서의 임상병리사의 역할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외협력정책실장 김 기 유

[지난호에 이어]

임상병리사의 방문건강관리 현장검사와 간호직역 측정행위의 차이점?

한국보건 의료 연구원은 과학적 근거 제시를 통한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건강 향상 기여라는 미션으로 '근거 기반 보건 의료'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근거 기반 보건 의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뢰성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가 배제되어 있다. 근거 기반 보건 의료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 돌봄에서의 임상병리사 참여는 의료 비용 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간호직역 측정행위가 아닌 고령층 돌봄 대상자의 치료 이후의 임상 데이터로 즉시 반영될 수 있는 임상병리사의 전문적인 검사행위는 질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할뿐 아니라 의료 비용 지출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WHO의 연구에 따르면, 방문건강관리 현장검사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혈액, 소변, 침 등 소량의 검체를 통해 바이오마커를 검출하여 환자 치료를 위한 의사결정에 약 60%~70% 영향을 미치지만, 전체 의료비 중 임상검사에 사용되는 비율은 단 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임상검사에 대한 투자가 단 1%만 증가해도 전체 보건비용에서 5%를 절감할 수 있는 높은 비용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검진 2022년 통계자료를 보면 검사행위 단계 중 검사 전 단계에서 비타민 C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음성 결과와 관련된 요검사와 혈액검사의 비용을 산출해보면 임상병리사의 전문적인 검사행위로 의료비용 지출 효율화에 708억 9천 60만 986원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다.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방문건강관리 현장검사는 필요하다.

만성질환 방문건강관리의 중요성 예를 들어 본다면 2024년 10월 25일 갑작스레 별세한 김수미 배우 사망원인을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전원일기 일용엄마로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배우 김수미씨의 사인은 '고혈당 쇼크'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뇨 수치가 500mL/dL이 넘게 나왔다고 했다.

고혈당 쇼크는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거나, 인슐린 투여가 중단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배우 김수미씨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 임상병리사가 방문하여 당뇨 체크에 관한 검사데이터 관리 및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진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건강하게 살아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에 임상병리사가 포함 되는 것이 필요할 이유 일 것이다.

얼마 전 재택요양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있었던 일이 보건 의료 관계지에 기사로 게재된 내용이 있었다. 여기에 물리치료사 대신 임상병리사로 대체해서 본다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뇌혈관 질환으로 평생 침대에 누워만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할머니가 물리치료사가 수개월에 걸쳐 집으로 방문한 끝에 마침내 침대에서 혼자 힘으로 일어난 것을 옆에서 지켜본 가족들이 놀라운 기적이라고 기념하여 찍은 동영상이 화제였다.

2025년 올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할머니처럼 방문재택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거동불편 환자수가 최소 35만 명이 넘어간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 의료돌봄의 기본방향은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제공받던 의료돌봄 서비스를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집에서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일차 의료-건강돌봄(간호, 재활, 검사, 구강, 정신, 영양)'을 연계체계 구축으로 맞춤형 ONE-STOP 통합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전담인력이 대부분 간호사들로 간호사 중심의 서비스로 편중돼 있을 뿐 아니라, 대상가구의 약 10% 정도만 등록 관리하고 있고, 연간 방문횟수도 평균 6회 정도로 2개월에 1회 방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통합 의료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특정 보건 의료 직역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보건 의료 인력이 고유한 면허와 자격에 따라 지역과 가정에서 통합적인 의료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의료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가 현대판 고려장이 안 되려면?

돌봄통합지원법은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관련법에 우선한다. 관련 법령의 정비와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등을 통한 향후 2025년 9월까지의 논의가 지역돌봄의 원형을 형성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구성하는데 있어 질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종의 다양화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통해 의료, 건강증진, 질병관리,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노인요양, 주거 등 지역돌봄 패키지에서 각 분야 사업 중 기존사업의 재구성과 신규사업으로 이어지는 돌봄서비스의 세밀한 요소들의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2026년 3월에 발효되므로 앞으로의 시범사업을 통해 보건 의료 직역들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협업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와 같이 국가가 국민들의 보건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 시 방문건강관리 현장검사(POCT)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 과 제도의 미비로 방문 현장검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돌봄통합지원법의 후속작업에서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방문현장검사가 임상병리사들의 업무와 역할로 규정 되어져야 한다.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포상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순번	성명	근무처
1	강나운	단국대학교병원
2	김영훈	전남대학교병원
3	신현우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4	이재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5	채희영	인하대병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 표창

순번	성명	근무처
1	이광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	이민우	고려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3	김한규	길의료재단 길병원
4	박희열	서울대학교병원

국회 서미화 국회의원상 표창

순번	성명	근무처
1	고인철	분당차병원
2	장성호	삼성서울병원
3	정옥희	목동힘찬병원
4	지우현	삼성서울병원

자랑스러운 임상병리사상

순번	성명	근무처
1	서한익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2	차경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최우수지회 / 최우수분과학회 표창

최우수지회	최우수분과
경상남도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

우수지회 / 우수분과학회 표창

우수지회	우수분과
대구광역시	대한임상면역검사학회
강원특별자치도	

협회장 공로패

순번	성명	소속
1	전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	홍창식	(사)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총회의장
3	심문정	국가시험원 시험위원장
4	김기성	대주회계법인 상무이사

협회장 특별상

순번	성명	소속
1	이상훈	약업신문
2	권창오	김천대학교
3	곽상수	한국도평방지위원회
4	이형섭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5	김한규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6	박희열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52회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전국 수석

순번	성명	소속
1	강민제	대구한의대학교
2	박수민	안산대학교
3	전하늘	경북대학교
4	김이슬	대구보건대학교

집행부 근무표창

성명	협회직위	성명	협회직위
지우현	총무이사	이경배	총무부장
신형식	재무이사	정지은	학술부장
최병후	학술이사	임효경	교육부장
장성호	교육이사	김문정	국제부장
서경아	공보이사	남기준	공보부장
주태영	정보통신이사	박준범	정보통신부장
박희열	기획정책이사	서희승	정보통신부장
김동현	법제이사	정다솜	법제부장
고인철	정무이사	송형석	정무부장
정옥희	중소병의원이사	배지현	중소병의원부장
윤선한	보험이사	안 영	보험부장

사무국 직원 근무표창

순번	성명	협회직위
1	조미숙	사무총장
2	홍찬의	행정지원국 사원
3	황래환	행정지원국 사원
4	김은혜	경영사업국 사원

협회장 우수회원 표창

소속시도	성명	근무처
서울시회	김덕환	(재)씨젠의료재단
	김도희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김득중	경희대학교병원
	박원영	세브란스병원
	정철용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부산시회	최용성	신촌연세병원
	김민주	부산좋은문화병원
대구시회	이성찬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인천시회	오 혁	길의료재단 길병원
광주시회	양진오	광주기독병원
대전시회	이승철	신원의료재단
울산시회	류석우	동천동강병원
경기도회	강신희	분당차병원
	김선규	동남보건대학교
	이강희	녹십자의료재단
강원도회	이석정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우준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충북도회	고상혁	강릉아산병원
충남도회	유상록	충북대학교병원
충북도회	인원교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전북도회	이기택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도회	김희경	성가롤로병원
경북도회	최은영	삼정의료재단 포항여성병원
경남도회	정진희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제주도회	한정표	제주도 서귀포의료원





제184차 정기이사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2월 8일(토) 오후 2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184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이사회에는 총원 50명 중 44명, 감사 3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제184차 정기이사회에서 정리된 각 부서별 보고사항으로는 △총무부 2025년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안내, 2025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기 감사 개최 안내, 업권발전위원회 위원 추가의 건, 장인호 전 협회장 출장비 지급관련 내부특별감사 진행 보고의 건, 2024년도 시도분과 행정지도감사 결과보고,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재건축 건물의 공사비 적정성 검토 용역 입찰 공고 관련 보고, 사무국 재무직원 사직 보고 △재무부 교부금 지급, 2024년 진폐정도관리 폐기능검사 및 판정교육 대형 용역 잔금 지급, 2024년 하반기 온라인 보수교육 교부금 정산, 2024 회계연도 결산 외부감사, 2024년 2기 확정 부가세 납부 △학술부 2025년 제1차 학술회의, 2025년 세계학회 주제발표 지원자 심사, 2025년 제2차 학술회의, 학술부 소위원회 구성의 건, 2025년 제1차 학술 연수강좌 개최 안 △교육부 혈관(초음파) 검사 온라인 보수교육 촬영, 제3차 보수교육위원회 회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센터 회의, 보건복지부 현장실습과목 가이드라인 회의, 임상병리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회의, 전문임상병리사 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분과학회 온라인 보수교육 강사 추천 및 온라인 보수교육 지원금 지급의 건 △국제부 2025 해외학회 초청일정 및 일반참가자 모집안내 공문 발송, 중소병의원 소속 회원을 위한 2025년 해외학회 참가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안내 공문 발송, 해외학회 지원 규정 △공보부 온라인 병리협보 편집 및 발간, 온라인 병리협보 디자인 변경의 건, SNS 관리, 축사 및 보도자료 작성, 회원고충처리 현황 △정보통신부 전산시스템 운영 회의의 건, 홈페이지 유지보수의 건, 통합홈페이지 고도화 구축사업 잔금 지급의 건, 엠포플러스(문자메시지) 사용내역 보고

△기획정책부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MOU 추진, 페루 ODA사업 입찰 진행의 건, 협회 사업자 등록증 업종 추가의 건 △정무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의 △중소병의원부 공익신고위원회 1차 회의, 중소발전위원회 1차 회의 △보험부 협회 홈페이지 자료 업로드의 건, 2025년 제1차 보험부 회의가 보고됐다. 이어진 안건 심의, 의결에서는 2025년도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 선출의 건, 2025년도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안건 상정의 건, 2024년도 결산 보고의 건, 2025년도 예산 보고의 건, 2024년도 종합감사 결과 보고의 건, 가처분소송 및 민사심 소송 사건 위임을 위한 변호사 선임의 건, '정관' 개정의 건, '종합 학술대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사무국운영 제 규정' 개정의 건, 협회 전산 인프라 및 전산시스템의 고도화 건, 2025년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비 납부의 건, 서울, 경기, 인천 지하철 동영상 광고 홍보 진행의 건, 수원특례시장 이재준 명예임상병리사 위촉의 건을 진행했다. 8호 안건을 제외한 안건은 모두 의결됐고 기타토의 후 제184차 정기이사회는 폐회했다.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성공적 시행을 위한 법령 제안 토론회' 참석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대표의원 이수진) · (재)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이 2월 13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성공적 시행을 위한 법령 제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재)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이 이광우 협회장과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을 초대했고 이정상 김기유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방문재활, 방문구강관리처럼 방문건강관리에 임상병리사의 역할도 포함하는 논의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발제와 학계, 관련 시민단체,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 4명의 지정토론 후 이어진 각 돌봄요양기관 및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질의응답에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발언 기회를 얻었고 김기유 실장은 "지역사회 의료돌봄사업 다학제팀에서 임상병리사들이 지역케어센터나 찾아가는 주치의제도에서 현장장비를 이용한 거동이 불편한 노쇠, 장애가 있는 돌봄의료대상자들에게 맞춤형사를 통해 치료 예후 방안을 정할 수 있게끔 One Stop으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기유 정책실장은 "2026년 3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역사회돌봄의료에서 임상병리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착륙과 향후의 성공을 내다볼 수 있는 국회 토론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총평에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와 함께 새로운 서비스 영역으로 임상병리사도 참여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쇠 장애 돌봄대상자 욕구에 준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추후 논의를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남인순 의원도 "방문진료, 방문간호,



2025년 제1차 학술 연수강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학술부가 2월 15일(토) 오전 10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지하2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1차 학술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강좌는 임상병리(학)과 졸업 예정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뜨거운 관심 속에 11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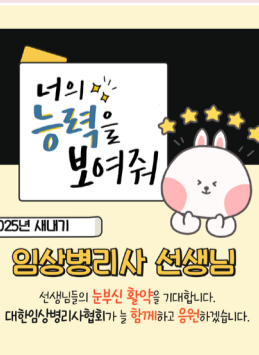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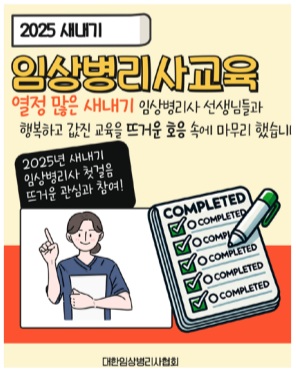
송기선 학술부회장의 환영 인사로 시작된 연수강좌는 먼저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이 '임상병리사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기유 실장은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전망,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정책 사업을 소개하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후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다.

이어 이은희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 사무관은 '임상병리사의 직업관' 강의를 통해 임상병리사의 직업적 가치와 소명의식을 강조하며, 본인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진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세 번째로는 서울아산병원 아카데미 조은희 팀장이 '의료기관 면접 특강'을 진행했다. 단순한 이론 강의가 아닌 퀴즈와 공감 영상을 활용한 실전 중심 교육이 이루어져 취업을 앞둔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강의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의 참가자가 '매우 만족'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후배들을 위한 추가 연수강좌 개설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설문 결과, 실무 경험이 부족한 새내기 임상병리사들을 위한 진로 및 임금체계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앞으로도 회원들과 더욱 친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강좌를 확대할 계획이며, 2025년 중 총 2회의 연수강좌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30일 연회비 할인 이벤트

이벤트 기간 2025년 2월 24일(월)~3월 23일(일)

이벤트 내용 10년치 연회비 할인
65만원 → 55만원

혜택 및 주의사항

- 준회원(3년간 연회비 미납)도 바로 정회원 전환
- 협회 신한카드 혜택과는 별개입니다.(중복할인 불가)
- 10년치 협회비 납입만 해당됩니다.
- 10년치 납부 후 면제사유 발생 시 환불 없이 기간 연장만 가능

중앙회 동정

2월 3일 기획정책부 회의
정보통신부 · 교육부 · 전산업체 회의
제2차 회장단 회의

2월 5일 제1차 한일교류공로자회 회의

2월 8일 제184차 정기이사회

2월 13일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제1차 사무국 회의

2월 15일 2025년 제1차 연수 강좌

2월 18일 정보통신부 · 전산업체 회의
총회의장단 회의

2월 21일 제2차 공익신고위원회 회의
2025년 기자간담회

2월 22일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2월 27일 제1차 전문임상병리사
운영위원회 및 분과학회장 연석회의



이제는 임상병리사도 ODA 사업에 참여할 때

ODA 사업참여 선구자 김동찬 회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8대 집행부는 해외 봉사 및 해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ODA 사업에 참여할 준비 중에 있다.

ODA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제반 제도·조건 개선, 개발도상국과의 우호 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범지구적 문제 해결 기여, 지속가능발전 등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협회는 외교부가 주관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시행하는 프로젝트형 사업 중 의료와 관련된 분야에 참여하고자 한다.

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ODA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만큼 다양한 ODA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김동찬 임상병리사를 만나 ODA 사업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1980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32년 동안 근무한 김동찬입니다. 근무하는 동안 주로 혈액은행, 요·기생충학검사실, 응급검사실 등 여러 검사실을 순환하였고, 특히 조직은행 품질관리자, 소아 진단검사의학과 팀장의 보직을 성실하게 수행한 후 2012년 본원에서 기사장으로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강남헬스케어센터에서 정도관리자로 3년 가까이 추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학회 활동으로는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 대한수혈학회 감사,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 간행홍보위원 등의 일을 하였으며, 후학을 위해 대전보건대학교, 신한대학교 등과 을지대학교 및 송호대학교에서 강의담당교수로 참여하였습니다.

Q. 임상병리사 회원 분들 중 ODA 사업이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ODA 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시 수 있으실까요?

A.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 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한국은 1945년 이후 ODA 주요 대상국이었다가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로서 한국의 ODA 역사 시작점으로 잡는 것은 1991년 4월 1일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즉 한국국제협력단의 출범입니다. 그로 인해 ODA 사업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16억 달러 정도를 아시아(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인도 등), 아프리카(가나,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이집트 등), 중남미(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에 무상원조하고 있고, 해당 국가의 미비한 감염관리, 환경관리, 보건위생관리, 의료관리, IT, 농업개선 등 열악한 보건의료와 사회적·경제적 분야의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발전시키는데 한국이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에 해당하는 분야는 감염관리, 보건관리, 의료시스템 개선이고, 특히, 미생물, 면역, 혈액, 화학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국가의 감염관리 표준화실험실 구축, 국제적 수준의 정도관리 기법, 의료장비관리와 검사실 운영관리의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외교부 주관 하에 시행 기관인 KOICA가 ODA 무상원조 사업을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Q. ODA 사업에 대해 아주 잘 알고 계신 것 같네요. 그중 어떤 사업에 참여해보셨고 어떤 역할을 맡으셨을까요?

A. 최근 아프리카 세네갈 국가공중보건실험실 체계강화 사업 의료기기, 역량강화 전문가(2023~2027), 남미 파라과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진단 및 감시 역량강화 사업 기회조사 전문가(2024), 페루 로레토주 장내 기생충 감염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아동건강 수준 향상사업 감염관리전문가(2024~2027)로 참가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질병관리청, 보건부, KOICA 지부, 한국대사관 등을 방문하여 그 나라의 열악한 감염관리, 검사실 현황을 파악하고 그 지역 현장에 가서 조사,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Q. ODA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신지요?

A. 2024년 6월, 남미 페루 로레토주의 이키토스, 벨렌 지역에서 기생충 감염 현황 및 주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그 지역을 3주간 방문하여 1,200명 초등학생들의 기생충 감염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로레토주 페루 아마존대학교 실험실에 배이스캠프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매일 하루 100장 정도의 검체도말된 슬라이드를 현미경으로 판독한 결과, 그 지역 초등학생 50% 이상이 기생충 감염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페루 보건청에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기생충 감염 예방 전략을 제안하여 기생충 생활사 관리, 투약, 치료함으로써 감염관리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국의 전문가로서 크게 이바지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또한 ODA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A. 의료분야 ODA 사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로 의사, 역학전문가, 보건행정가, 간호사가 참여하여 주도해왔고 임상병리사들은 거의 참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최근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도 ODA 사업에 관심을 갖고 팀을 구성하여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미약한 힘이나마 협회와 함께 사업 정보를 나누고 협회 회원들에게도 ODA 사업 참여에 관한 미래의 길을 여는데 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임상병리사회

중소병의원 간담회 개최



대구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문성식)가 2월 16일(토) 오후 2시 대구 씨젠의 료재단 회의실에서 중소병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앙회 이광우 협회장이 참석해 현재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의 법제화 및 필요성과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중앙회의 노력을 대구시회 소속 중소병의원 회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중앙회 최병호 사업부회장은 '적정임금 가이드라인과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정책'에 대한 중앙회의 노력을 설명했고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정책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이어진 질의시간은 회원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인해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기며 마무리됐다.

문성식 회장은 "업무범위와 임금 가이드라인 등의 현안에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업무지식과 전문성 향상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회에서는 분야별 심화교육을 활성화하여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고 대구시회 이현주 중소병원 이사는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중소병원 회원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길 바라며, 협회의 방향과 노력을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경상남도 임상병리사회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경상남도 임상병리사회(회장 곽진영)가 1월 18일(토) 마산대학교 미래관 서관1층 CTL실에서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1부 개회식으로 시작된 총회는 이종욱 의장의 개회사와 곽진영 회장의 인사말,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2부 대의원총회에서는 양태근 감사위원이 경남도회의 회무 제반에 대한 감사보고를 진행했다. 보고에서는 교육프로그램(심장 초음파, 수면 다원검사, 채혈)을 통해 회원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이 우수하다고 평가가 있었고, 보수교육 부문에서 지역적 적절하게 안분하여 회원들이 보수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할 것을 당부했다.

곽진영 회장은 "특히 올해는 서부, 중부, 남부 지역별 간담회를 보수교육과 함께 진행할 계획 중이며, 양질의 교육을 통해 회원 권익을 향상시키고, 현장에서 회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협회,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경남도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임상병리사회

투병 회원에 학술발전 생활안정자금 후원



경기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유광철)가 지난 2월 6일(목),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모처에서 '2025년 학술발전생활안정위원회 후원사 간담회 및 학술발전 생활안정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경기도회 학술발전 생활안정자금은 학술발전에 관심이 많거나 학술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으로서 질병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술발전의 꿈을 이루지 못한 회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학술발전 생활안정자금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임상병리사 회원 부부와 또다른 투병 회원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전달됐다. 행사에 직접 참석한 회원은 행사 직후 감사인사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받은 도움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함께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전했고 부부 회원은 항암치료 중인 부부를 대신해 그 가족이 대신 참석해 경기도회와 후원사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학술발전생활안정위원회는 협회 발전에 기여하는 업체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 마련된 기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회원들에 대한 대표적인 경제지원 활동 중 하나로서 이 날에는 △(주)동방피오씨 △(주)삼일약품교역 △(주)유정메디텍 △(주)에스에스메디피아 △(주)태진엔디/(주)클라우드메디 △(주)탑진단/레빅스 △(주)한독약품 △DS메디피아 △마르페메디칼 △지멘스 △한국에보트유한회사 △(주)한국로슈진단 등 후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일정상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주)화산시스템 최성민 지사장은 "이번 간담회 소식을 통해 후원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고, 앞으로 도 이러한 뜻깊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광철 회장은 "생활안정자금은 학술발전과 생활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이 생활로 인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회는 앞으로도 회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수상자]

- 협회장상 : 하주희 (창원 파티마병원)
- 도회장상 : 성다슬 (한성병원)
- 우수회원상 : 서명진 (창원 경상대병원)
방희연 (창원 파티마병원)
지수현 (한국건강관리협회)
- 도지사상 : 김현주 (삼성창원병원)
정한나 (김해대학교)
- 국회의원상: 전병구, 박영규, 김충건 (삼성창원병원)
황정인, 최지인 (창원 경상대병원)
오수현 (창원 파티마병원)
김영환, 김해솔 (한국건강관리협회)
서현민 (밀양 윤병원)
윤종인 (창원 한마음병원)



충청남도 임상병리사회



202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5주기 병의원 평가 설명회 실시

충청남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이상훈)가 지난 2월 15일(토) 오후 3시 천안 타운홀 대회의실에서 202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5주기 병의원 평가 설명회를 실시했다. 19명이 참가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충남도회 송승현 중소병의원 이사가 진단검사의학 분야 일반 검진 세부내역 및 암 검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회는 3월 22일(토) 오후 2시 천안 신라스테이 미팅룸에서 '2025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함께하는 중소병의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2025년 현미경 조직검경 심화교육 개최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학회장 소선거)는 2월 8일(토)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지하 2층 대강당에서 현미경 조직검경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회원 90명이 참가했고 교육은 4시간 진행됐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김어진 교수는 '하부호흡기계 및 위장관계 병리 현미경 조직 소견'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종양의 분류 방법과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기 쉽게 정리했고 상피종양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돕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직세포검사학회는 김 교수가 또한 조직절편 슬라이드를 현미경으로 대형 LED스크린에 실시간 화면을 띄워 정상조직을 시작으로 하부호흡기계의 중요 양종과 위장관의 샘양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회원들이 이해하기 쉬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 경기 이외에도 강릉, 충북, 부산, 울산 등 전국에서 90명의 회원이 등록할 정도로 회원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았다. 또한 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자료와 강의 내용의 만족도가 98점으로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했다.

소선거 학회장은 "앞으로 이번 심화교육을 기반으로 회원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의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심화교육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제3회

세포전문병리사 양성교육 입교식 개최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위원장 신민식)는 2월 15일(토) 오후 1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대강당에서 제3회 세포전문병리사 양성교육 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교식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송기선 학술부회장,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소선거 학회장이 참석했고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신민식 위원장 외 11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귀빈 및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임원 소개가 이어졌고 이어 중앙회 송기선 학술부회장의 축사, 소선거 학회장 및 신민식 위원장의 격려사가 진행됐다. 이후 3기 교육생 16명 소개와 양성교육 과정에 관한 설명이 진행된 후 입교식은 마무리됐다.

제3회 세포전문병리사 양성교육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4층 조직세포검사교육장에서 2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23주간 매주 토요일 7시간 대면교육과 매주 화요일 2시간 온라인 교육 등 총 180시간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은 올해 9월 27일 예정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주관하는 전문병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ESPO II SLIDE PRINTER



ESPO II 주요 특징

슬라이드 & 잉크 리본
잔량 3단계 표시

두 개의
100 슬라이드 매거진

내장되어 있는
통합 바코드 스캐너

ESPO II 전용
프리필드 슬라이드
카트리지가
미리 채워져 있어
편의성과 효율성 제공

WLAN, LAN, USB를
이용한 손쉬운
다중 연결

용매에 강한 잉크 리본

경량 - 무게 4.5kg

쉬운 잉크 리본 교체

세 가지 배출 모드

01 SINGLE MODE
싱글 모드는 선택 방식 출력이 적합합니다.

02 CONTINUOUS MODE
연속 모드는 슬라이드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03 FRONT LOADING MODE
단독 슬라이드 프론트 로딩은 조직이 슬라이드에 있을 때에도 리본이 필요 없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
hyunil-lab.com



쇼핑몰
www.
lab-mate.com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과 감염관리 전공 '협회 회원 겹경사'

황인원 회원 대한미생물검사학회 2024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비오메리으 학술상
김윤미 회원 2025년 대학원 졸업자 중 우수논문상 수상자로 선정 영예

건양대학교는 2월 13일(목) 오후 2시 창의융합캠퍼스 콘서트홀에서 2024학년도 제31회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과 감염관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3명 중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이자 삼광의료재단 중부센터 분자미생물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윤미 회원은 'Molecular Genetic Characteristics of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les among Long-Term Care Hospital in Korea'라는 논문으로 우수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김윤미 회원은 뜻밖의 행운에 놀라면서 "연구 과정에서 소중한 의견과 따뜻한 조언을 아낌없이 지도해 주신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이무식 원장님, 지도교수이신 김영권 교수님, 삼성서울병원 정태원 박사님, 건양대학교의료원 김상하 박사님과 삼광의료재단 중부센터의 서순팔 대표원장님, 고지선 원장님, 송용범 실장님, 미생물팀 팀원들 그리고 분자미생물팀 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김윤미 회원은 2025년도 박사학위 과정에 합격하여 학업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날에 공주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강동현 회원은 '충남 일개 의료원에서 분리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의 유전자형 및 역학적 특성'이라는 논문으로 세종 충남대학병원 인체자원은행에서 근무하는 양희경 회원은 '한국 성인의 건강행태 · 식습관 · 의료관리 요인이 당뇨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석사학위를 받은 회원들은 앞으로 더욱 노력해 학문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임상병리사로서, 감염관리자로서의 위상을 높여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졸업소감을 밝혔다.

한편 2024년도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공주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황인원 회원은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2024년 추계학술대회에서 '혈액 배양에서 분리된 Fluoroquinolone계 약제 내성 황색포도알균의 SCCmec 아형에 따른 gyrA와 gyrB 유전자에서의 DNA 돌연변이 양상'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비오메리으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 본 대학원 졸업생 중 김상하 박사과 정태원 박사는 감염관리전공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후진양성을 위해 논문지도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황유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사 겸 청주의료원 조성훈 실장, 감염안전관리 임상병리사회 손재형 회장, 의정부성모병원 박강균 실장, 동의과학대학 서충원 교수, 국립보건연구원 신희은 선임연구원, 질병관리청 김주봉 사무관 등 졸업생들이 여러 대학과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다.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신입생모집(석사 및 박사과정)

1. 특전

- ① 모든 입학자는 입학 또는 재학 시 학비 감면 장학혜택 부여
 - 수업료의 50% 감면: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또는 현역군인과 외국인
 - 수업료의 40% 감면: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임직원
- ② 비논문 석사학위 취득 - 논문 대체 학점 취득 또는 석사학위 논문선택
- ③ 강의; 석사- 화, 목요일, 박사-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대전 메디컬 캠퍼스

2. 온라인 원서접수

(<http://kygrad.konyang.ac.kr>) 5월 중, 11월 중.

3. 문의

- ①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번지 건양대학교 대전메디컬캠퍼스 대학원 사무실 T. 042 - 600 - 1650 ~ 2
- ② 감염관리전공, 진단검사의학전공 책임교수: 김영권 교수(ykkim3245@konyang.ac.kr)

모집 전공 분야	정원
감염관리	10명
진단검사의학	10명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10명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10명
산업 및 환경보건	10명
역학 및 보건통계	10명
구강보건	10명

(재)씨젠의료재단, 제16기 우수인재 공채 정규직 선발직원 임명장 수여식 개최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이사장 천종기, 이하 씨젠의료재단)은 2월 24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제16기 우수인재 공채사원에 대한 정규직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해 8월 공고된 제16기 우수인재 공채에는 검사 및 사업 부문에 414명이 지원해, 검사 부문 15.4 : 1, 사업 부문 7.4 :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정규직 선발 직원들은 제16기 우수인재 공채사원을 대상으로 5개월간의 인턴십 프로그램과 근무 및 교육평가 · 면접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선발되었다. 신입 직원들은 소정의 정규직 전환 교육을 마친 후, 본원 및 지역 검사센터 · 전국 지점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한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천종기 이사장을 비롯해 한규섭 대표의료원장 · 강신광 대표병리원장 등 주요 보직자 전체가 참석하여 16기 우수인재 공채사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축하하였고, 업무개선안 평가 및 인턴십 프로그램 종합 평가 부문 우수자 시상과 신입사원 임명장 수여 및 소감 발표 · 임직원 소개와 격려사 등이 진행되었다.

신입사원을 대표하여 검사 부문의 직원은 "5개월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나아가 현장에서 검사자의 책임감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라며, "교육 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신 선배님들과 지도해 주신 모든 분, 그리고 함께한 인턴십 동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항상 배우는 자세를 견지하며 성장하여 우리 재단의 발전에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씨젠의료재단 천종기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신입 직원분들은 힘든 인턴십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신만큼, 앞으로의 업무를 슬기롭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우리 재단은 신입 직원분들이 긍정적 마음가짐을 내재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천 이사장은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재단에 올 한 해는 큰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신입 직원분들이 품고 있는 소중한 꿈을 우리 재단에서 실현해 나가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재)씨젠의료재단은 품질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올해로 설립 35년 차를 맞은 (재)씨젠의료재단은 80여 명의 전문의를 포함하여, 석박사 · 임상병리사 등 전문인력들이 진단의학 검사 · 분자진단 검사 · 병리 검사 · 연구용 검사 등 검체검사 관련 전 분야에 걸쳐 4,500여 가지 이상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 · 내외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입니다.

2025년! 감상평 이벤트!

여러분의 병리협보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병리협보가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상평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접수기한 2025년 3월 28일(금) 18:00까지 전송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상품받으실 주소

접수방법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제505호 당첨자

이번호 가장 좋았던 기사 '임상병리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추진

안소희(정회원) / 전화번호 : 66139

4년제 학제일원화를 추진하며, 높은 역량의 임상병리사를 배출하고 교육하며 의료현장에서 특정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구체화된 지식 기반 업무 습득이 필요합니다. 각 진료과에 대한 연결고리를 알고 의료진과의 소통을 할 때에 직업에 대한 구체화된 전문성이 필요함을 의료현장에서 느낍니다. 4년제 학제일원화를 통해 임상병리학과와 위상이 올라가고 전문성이 높아진다면, 향후 후배들이 의료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강화된 전문성과 역량을 갖고 함께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병리 협보를 통해서 앞으로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이 더욱 의료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소망함과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협보의 소식지를 통해 임상병리사의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들 감사합니다.

이창현(정회원) / 전화번호 : 70655

처음 중점이 되는 사안이 나오는 중요한 1면의 제목을 보고 '이건 무슨 내용이지?' 라는 의문과 사회초년생으로서 3년제라도 학점은행제로 4년제 임상병리학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취업 전에는 이력서를 낼 때 배우는 범위가 더 넓은 4년제를 더 좋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 중점사업의 기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추가로 이번 내용을 보고 검색을 통해 타 학과의 기사내용을 추가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이번에 카카오톡으로 병리협보의 두 번째 알림을 받았는데 기사와 같이 임상병리사의 미래에 힘쓰는 내용을 볼 때 '이런 사업을 진행 하고있구나' 와 이번엔 '국가 시험 수석합격자 인터뷰란 것도 있네?'와 같이 챙겨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소식

오승섭 회원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진단검사의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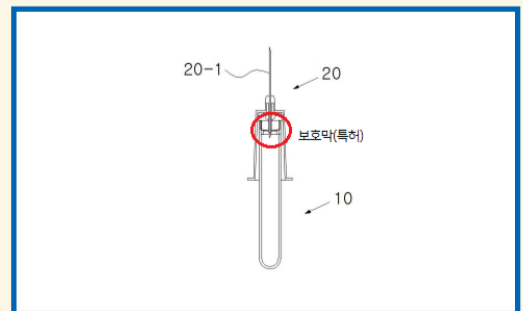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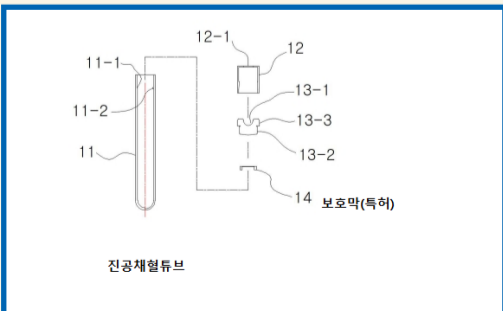
의료 현장의 감염관리 혁신 보호막 삽입 혈액검체 튜브 특허취득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근무하는 오승섭 회원이 혈액검사 과정에서 검체가 앞질러지거나 샘플 간 교차오염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막이 삽입된 새로운 혈액검체 튜브로 특허를 받았다. 이 기술은 특허 취득으로 실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채혈 후 검사 장비에 장착하기 위해 채혈튜브의 마개를 제거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경복(앞질러짐)하게 되는 경우 검체가 유출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다수의 샘플을 취급·보관하기 위해 튜브랙(Rack)에 꽂을 때 검체가 튜브 외부로 튀어나오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교차오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오승섭 회원은 20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직접 경험하며 해결책을 고민해왔다. 혈액검사 과정에서 튜브의 경복으로 인한 검체 손실과 교차오염 문제는 의료진의 감염과 검사결과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채혈튜브 내부에 보호막을 삽입하여 검체가 튜브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함으로써 검체가 외부로 튀는 것을 방지하고, 검사 후 검체를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보관(관리)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보호막이 장착된 상태에서 기존 검사 장비와의 호환성을 유지하여 별도의 추가 장비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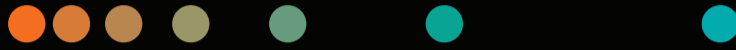
이는 검체를 다루는 모든 과정에서 감염과 오염을 동시에 예방하여 의료진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했으며 이 기술의 핵심이다.



Atellica® CI Analyzer

Integrated Chemistry and Immunoassay Analyzer

siemens-healthineers.com/atellica-ci-analyzer



QR700002239

Small Size. Big Impact.

임상화학 · 면역 검사 통합 솔루션

Atellica® CI Analyzer 장비는 임상화학 · 면역 검사를 동시에 수행하며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시스템 기능 및 특징점

- 독립적 운용 형태 임상화학 · 면역 검사 동시 수행 – 검체 로딩 위치 동일
- 검체 저장 공간 최대 120검체 (60 input / 60 output)
- 시간당 검사 처리
 - 생화학 : 1000 tests/hr (일반화학 600, 전해질 400)
 - 면역 : 120 tests/hr
- 시약 장착
 - 생화학 : 총 70개 포지션 (Single & Dual reagent kit)
 - 면역 : 총 40개 포지션 (주시약 20 / 보조시약 20)
- 응급 검체 처리 검체 로딩 후 1분내 검사 시작
- Atellica® Solution과 동일 시약 플랫폼 백업 기능 효과 및 시약 관리 편리성

새로운 소프트웨어 형태

사용자 편의성이 강화된 유저 인터페이스

- 앱 형태로 검사실별 특화된 메뉴 구성
- 샘플 관리 추적성 강화
- 환자, 칼리브레이션, QC 결과 통합 관리



<https://pr.segenemedical.com/>

홈페이지 바로가기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재)씨젠의료재단은 국내 최고 수준의 검사 역량을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 해외 의료 진출을 위한 오픈헬스케어(주)(Open Healthcare, Inc.)를 설립했습니다. 카자흐스탄 · 미국 · 베트남 등에서 검사센터와 클리닉 및 검진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질병검사 및 치료를 제공하는 글로벌 헬스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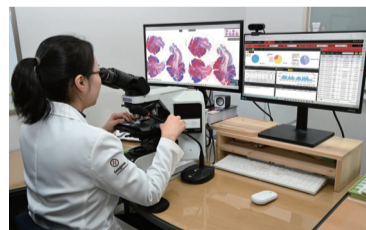
(재)씨젠의료재단은 품질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검사실 자동화(TLA) 시스템 운영



국내 최대 분자진단 검사 역량 보유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 도입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서비스 제공